

# 크니림과 왕대일의 구약신학 비교 연구

강성열\*

## 1. 들어가는 말

작년(2018년) 9월 29일(토)에 구약학의 대가<sup>1)</sup>인 로프 크니림(Rolf Paul Knierim, 90세)이 사랑하는 아내(Mrs. Hildegard Emma Knierim, 89세)와 함께 뉴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962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폰 라트(G. von Rad)의 지도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캘리포니아의 클레어몬트 신학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ST)에서 오랫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구약성서를 가르쳤고,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학문 활동을 지속해 왔었다.

국내에 있는 구약학자들 중에서 크니림의 제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은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2019년 2월에 정년퇴임하는 왕대일이다. 정년퇴임을 목전에 둔 그에게는 스승인 크니림 부부의 소천이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이에 *Canon & Culture*에서는 클레어몬트 신학교를 매개로 하는 두 사람의 공교로운 인연을 계기로 하여, 2019년 봄호를 “왕대일 교수

---

\*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크니림은 필자가 번역한 다음의 책에서 올렌버거(G. B. C. Ollenburger)에 의해 21세기 구약신학의 전망을 대표하는 다섯 모델들(H. Gese, W. Brueggemann, J. D. Levenson, P. Tribble, R. Knierim) 중의 마지막 학자로 소개되어 있다: G. B. C. Ollenburger, E. A. Martens, and G. F. Hasel (편), 『20세기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 강성열 옮김 (교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673-699.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특별 논문집으로 헌정하고자 했고, 크니림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구약신학의 과제 1-2』를 번역<sup>2)</sup>한 필자에게 두 사람의 학문적인 성과들을 비교하는 연구 과제가 주어졌다.

두 사람이 그 동안 발표한 논문들이나 저술한 책들이 매우 많지만, 이 짧은 글에서 그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기에, 두 사람의 주요 관심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구약신학”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실제로 두 사람은 제각기 1995년<sup>3)</sup>과 2002년<sup>4)</sup>에 자신의 구약공부를 중간 결산하는 구약신학서를 출간한 바가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크니림이 정년퇴임한 후에 구약신학서를 출간한 반면에, 왕대일은 한참 활동 중인 2002년에 초판을 발행했고, 2015년에 개정판<sup>5)</sup>을 출간했다는 점이다. 크니림의 말마따나 “구약신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구약학의 조직신학”이나 다름없는 것임<sup>6)</sup>을 염두에 둔다면, 두 사람의 구약신학을 비교하는 작업은 자못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며, 한국의 구약학자들에게도 소중한 연구 지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

## 2. 구약신학에 대한 정의

구약성서에 대한 모든 학문적인 연구를 통틀어 우리는 흔히 “구약학”(Old Testament Studies,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이라 일컫

---

2) 사실 이 두 권의 한글 번역본은 본래 영어권에서 한 권으로 출간되었던 것으로, 누군가가 제1권의 “두 번째 강연: 구약신학의 방법론”(1-148쪽)까지 번역하다가 중단된 채로 있던 것을, 필자가 출판사의 부탁으로 “세 번째 강연: 구약신학에서의 정의”(149쪽 이하)부터 번역을 시작하여 제2권까지 마무리한 것이다. R. P. Knierim, 『구약신학의 과제 1-2』, 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2002).

3) Knierim, *The Task of OT Theology: Substance, Method, and Cases* (Grand Rapids: Eerdmans, 1995).

4) 왕대일, 『구약신학』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성서학연구소, 2002).

5) 왕대일, 『구약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6) Knierim, 『구약신학의 과제 1』, 40, 42-44.

는다. 그리고 구약학에는 일반적으로 다섯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약언어(language), 구약개론(introduction), 구약역사(history), 구약신학(theology), 구약주석(exegesis) 등이 그렇다. 이 다섯 분야들 중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네 번째인 구약신학이다. 특히 이곳에서 맨 먼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크니림과 왕대일이 제각기 구약신학을 어떠한 학문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여기서는 그것들을 살피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구약학자들은 성서신학 분야에 속한 구약신학이 “성서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가블러(J. P. Gabler)에 의해 교의학으로부터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1787년(3월 30일)에 가블러가 알트도르프(Altdorf) 대학에서 행한 교수취임강연(연)에서 성서신학과 교의신학의 구분을 것을 제안한 데서 그 시발점을 찾는다. 크니림은 특히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자신이 저술한 책의 맨 마지막 단원에서 가블러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평가와 해석을 소개함과 아울러, 그들과 구별되는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와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가블러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가진 이 마지막 단원은 크니림의 책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sup>8)</sup> 이것은 그가 성서신학의 독립적인 출발점을 이룬 가블러의 학문적 성과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암시한다.

크니림이 소개한 학자들<sup>9)</sup>의 설명에 의하면, 가블러는 성서신학을 넓은

7) 가블러의 이 강연 원고 전문은 필자가 번역한 다음의 책 부록에 실려 있다: Ollenburger 외, 『20세기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 703-721.

8) Knierim, “가블러에 관하여,” 『구약신학의 과제 2』, 823-923.

9) Rudolf Smend, “Johann Philipp Gablers Begründung der biblischen Theologie,” *EvT* 22 (July 1962), 345-57; Hans Joachim Kraus, *Die Biblische Theologie - Ihre Geschichte und Problemati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0), 52-59; Otto Merk, *Biblische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in ihrer Anfangszeit*, Marburger Theologische Studien, no. 9 (Marburg: N. G. Elwert, 1972), 31-45; Hendrikus Boers, *What Is New Testament Theology?* Guides to Biblical Scholarship: New Testament Series (Philadelphia: Fortress, 1979), 23-38; John Sandys-Wunsch

의미에서의 “진정한”(true) 성서신학과 좁은 의미에서의 “순전한”(pure) 성서신학으로 구분하는 바, 전자가 성서 저자들의 신학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서술함과 아울러 성서 종교의 전체적인 모습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서술적인 과제에 속한 것이라면, 후자는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불변하는 성서의 가르침, 곧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규범적인, 그리고 교의학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들과 불변하는 이념들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규범적인 과제에 속한 것이다.<sup>10)</sup>

크니림은 전자를 시대의 제약을 받는 시간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에, 후자는 모든 시대에 항구적으로 적용되는 영원한 것으로 규정한다.<sup>11)</sup> 이와 관련하여 가블러는 해석자들 자신이 성서의 개별적인 책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들을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쪽으로 계층화된 이념들의 체계로 정리해야 하고, 그러한 결과들에 기초하여 성서 안에 있는 책들의 주된 이념들을 비교해야 한다고 말하는 바, 크니림도 어느 정도는 가블러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2)</sup> 크니림의 이러한 생각은 구약성서의 다양한 자료들과 신학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심 주제를 찾는 작업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sup>13)</sup>와 맥을 같이 한다.

실제로 크니림은 구약성서 안에서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하나의 관점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sup>14)</sup> 구약성서 안에 있는 다양한 신학적 관점들을 하나의 중심적인 신학적 구조로 융합시키고자 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타당하

---

and Laurence Eldredge. “J. P. Gabler and the Distinction between Biblical and Dogmatic Theology: Translation, Commentary, and Discussion of His Originality,” *SJT* 33 (1980), 133-44.

10) 위의 글, 827-834; John Hayes and Frederick Prussner, 『구약성서 신학사』, 장일선 옮김 (서울: 나눔사, 1991), 86-87.

11) Knierim, “가블러에 관하여,” 869-879.

12) 위의 글, 865.

13)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글을 참조: “구약신학사 개관을 통해서 본 구약신학의 미래,” 『신학이해』 52 (2017), 14-20.

14) Knierim, “구약신학의 과제에 대한 해럴슨(W. Harrelson)의 논평,” 『구약신학의 과제 1』, 48.

지 않은 것으로, 심지어는 해로운 것으로 규정하기까지 한다.<sup>15)</sup> 더 나아가서 그는 많은 구약학자들이 구약성서 안에 다양한 신학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pluralism, plurality)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따라서 주제나 신학의 통일성을 매개로 하여 구약성서 전체를 규정하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도리어 그는 이처럼 다양한 주제들과 신학들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작업이야말로 구약신학의 본질과 과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단순히 그러한 것들을 병렬시키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구약신학의 정립이 불가능하다고 본다.<sup>16)</sup>

이 점에 있어서는 크니림의 제자인 왕대일의 견해도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왕대일 역시 구약성서 안에 있는 신앙적인 증언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기에 여러 개의 구약신학을 말해야 하며, 다양한 증언들이나 주제들 또는 개념들이나 관점들을 단순히 병렬시키기보다는 그것들을 서로 비교, 대조, 검토하는 작업이야말로 구약신학의 본령에 해당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7)</sup> 무엇보다도 왕대일은 21세기 구약신학을 전망하는 하젤(G. F. Hasel)의 제안<sup>18)</sup>을 따라 하르트무트 게제(Hartmut Gese), 월터 브루거만(Walter Brueggemann), 존 레벤슨(Jon D. Levenson), 필리스 트리블(Phyllis Tribble), 롤프 크니림(Rolf Knierim) 등의 다섯 명을 21세기 구약신학을 대표하는 다섯 모델들로 소개하면서, 자신이 크니림의 모델을 자신의 구약신학하기의 방법론적인 받침대로 삼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다.<sup>19)</sup>

굳이 두 사람 차이에 차이가 있다면, 크니림이 자신의 책에서 구약신학의 과제를 가장 먼저 다루되, 가블러를 출발점으로 하여 전개된 구약신학의 역사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채로, 가블러의 교수취임강연만을 중점적으로

15) Knierim, “구약신학의 과제에 대한 시블리 타우너(W. S. Towner)의 논평,” 『구약신학의 과제 1』, 53.

16) Knierim, “구약신학의 과제,” 『구약신학의 과제 1』, 20-24.

17) 왕대일, “구약신학하기-그 방법론,” 『구약논단』(2015), 92-93.

18) Hasel, “제3부 21세기 구약신학의 전망,” 『20세기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 533-699.

19) 왕대일, “구약신학하기-그 방법론,” 89.

고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왕대일은 제1부 “구약신학의 방법론”에서 구체적으로 구약신학하기의 방법론을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구약신학의 흐름: 역사적 개관”과 “구약신학의 다섯 모델: 21세기의 구약신학”을 고찰함으로써, 구약신학의 역사를 돌아봄과 아울러 그 미래까지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왕대일이 구약신학의 역사를 세 시기로 나누고 있음은 그의 구약신학에만 있는 흥미로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예로써 그는 첫 시기를 가블러에서 폰 라트까지 이전까지로 보며, 두 번째 시기는 20세기 구약신학의 두 기둥인 아이히로트(W. Eichrodt)와 폰 라트를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아이히로트와 폰 라트 이후 20세기 말까지 이어지는 시기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왕대일이 구약신학의 역사에서 아이히로트와 폰 라트를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상정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크니림이 구약신학서의 부제목을 “Substance, Method, and Cases”로 정함으로써, 자신의 구약신학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그는 구약신학의 과제를 설명하는 중에 구약신학의 본질과 중심 내용(substance)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이어서 구약신학의 방법론(method)을 다룬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약신학의 구체적인 사례들(cases)을 살피고자 한다. 실제로 그는 정의(justice), 계시, 우주와 역사, 식량, 땅, 희망, 영성, 문자와 영, 과학, 죄론 등의 다양한 사례들을 고찰하고 있으며, 시편 19편과 오경, 민수기, 출애굽기 25:1-9 등의 본문들을 자신이 규정하고 있는 구약신학의 시각에서 살피고 있다.

반면에 왕대일은 자신이 출간한 구약신학서의 기본 틀을 크니림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되, 제1부에서는 “구약신학의 방법론”을 다루고 있으며, “구약신학의 이해”라는 제목을 붙인 제2부에서는 구약성서를 구성하고 있는 네 부분, 곧 오경, 역사서, 성문서,<sup>20)</sup> 예언서 등을 구약신학의 시각에서 고찰

20) 왕대일은 70인역(Septuagint)의 4분법에 따른 기존의 “사가서”라는 호칭 대신에, “성문서”(크투빔; Holy Writings)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지혜서와 시편을 다루고 있지만, “성문서”는 사실 히브리 성서(Hebrew Bible; BHS)의 3분법(토라, 느비임, 크투빔)에 속한 호칭인 테다가, 지혜서와 시편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들-왕대일이 역사서의 범주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신학의 적용”이라는 제목이 붙은 제3부에서는 창조 신앙, 구속사, 시온전승, 유일신 신앙, 종말론 등의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구약신학의 구체적인 적용에 초점을 맞추되,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주제들이 오늘의 상황 속에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꾸준히 살피고 있다.

두 사람이 저술한 책의 구성이나 목차에 대한 이러한 평면적인 비교는 두 사람이 자신만의 독특한 구약신학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고자 하는지를 한눈에 알게 해준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제3부에서 창조신앙을 구속사보다 먼저 다루는 왕대일의 시도가 그의 스승인 크니림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크니림은 구속사 일변도의 전통적인 구약신학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야웨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우주적인 통치를 강조하는 창조신앙이야말로 구약신학의 중요한 핵심 주제임을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1)</sup> 이 부분은 “구약신학의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항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3. 구약신학의 방법론

종교개혁자들이 제창한 “오직 성서로만”(sola scriptura)이라는 해석 원리는 성서가 교의학이 주장하는 개별적인 교리들의 증빙 본문(proof-text) 저장소가 아니며, 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종속된 것이 이념을 분명하게 밝혀주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곧바로 성서신학이라는 독립적인 학문 분야의 확립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그것은 반종교개혁의 공격으로부터 종교개혁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완벽하고 빈틈이

---

설명하고 있는 역대기 역사를 포함하는-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라리 기존의 “시가서”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 21) Knierim, “구약신학의 과제,” 35-41. 왕대일의 다음 책은 크니림의 창조신앙을 훌륭하게 계승하고 있는 저술이라 할 것이다. 『창조신앙의 복음, 창조신앙의 영성: 창세기 1-11장의 물음, 부름, 푸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없는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형성하고자 하던 개신교 스콜라주의의 노력에 의해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sup>22)</sup>

성서의 가르침을 조직신학의 교리 체계 안에 집어넣는 대신에 성서 자체가 말하도록 하는 성서신학의 태동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블러에 의해서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가블러는 성서신학이 성서 본문들을 저자의 역사적인 배경에 비추어 해석한다는 점에서 교의학과는 달리 역사적인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고<sup>23)</sup> 이에 기초하여 많은 성서학자들이 성서에 대한 역사적인 주석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가블러 이후로 성서신학은 교의학으로부터 점차 독립하여 자기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서학자들의 세부적인 연구 분야에 맞추어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의 구분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시발점을 이룬 사람은 맨 처음으로 구약신학서(Theologie des AT, 1796)를 저술한 바우어(G. L. Bauer)였다. 그러나 바우어는 구약성서 안에 있는 다양한 종교적 개념들의 발전 과정을 교의학의 주요 개념들과 무관하게 성서 자체의 역사적인 시각에서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의학의 전개 방법인 하나님-인간-구원, 즉 신론-인간론-구원론의 구조를 극복하지 못했다.<sup>24)</sup> 이것은 초창기의 성서신학이 아직 자신의 독자적인 방법론을 개척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역사적인 방법과 조직신학적인 연구가 결합된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했다.<sup>25)</sup>

이러한 경향은 역사비평적인 방법이 생겨나 널리 활용되던 시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구약신학을 조직신학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던 전통적인 형태의 구약신학이

22) Hayes and Prussner, 『구약성서 신학사』, 23-35.

23) H. G. Reventlow, 『20세기 구약신학의 문제들』, 박문재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18.

24) Ollenburger, “무시각적인 개념들로부터 종교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1930년대 이전의 구약신학 방법론,” 『20세기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 21.

25) Hayes and Prussner, 『구약성서 신학사』, 92-95.

이스라엘 종교사로 대체되면서, 구약 종교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헤겔의 변증법적인 논리나 다윈의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추적하려는 새로운 방법론이 구약신학의 무대에 등장하였다.<sup>26)</sup> 그 후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구약신학이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면서,<sup>27)</sup> 종교사와 신학의 병렬과 융합을 목표로 하는 이원론적인 접근법이 방법론상의 혁신을 이루게 되었고,<sup>28)</sup> 성서 본문이 무엇을 의미했는지(what it meant)를 탐구하는 역사비평적 접근법(서술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최종 형태로 완성된 구약 정경이 오늘의 신앙 공동체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what it means)를 탐구하는 신학적(규범적) 해석을 산출하려는 노력<sup>29)</sup>도 가열차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제는 신론-구원론-인간론과 같은 교의학의 체계로부터 벗어나 구약성서 자체의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이념들이나 주제들에 맞추어 구약신학을 서술하려는 방법론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신학의 일면성이나 편협함 내지는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차원에서 물질계를 대표하는 자연(nature)이라는 주제를 구속사나 계약, 정 등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주제들과 대등한 차원에서 다루려는 노력도 일정 부분 진전을 보기에 이르렀다. 부분적이고 단편적이기는 해도 이를테면 땅의 주제를 소중하게 다루고자 한 침멀리(W. Zimmerli)<sup>30)</sup>나 브루거만,<sup>31)</sup> 마르텐스(E. A. Martens)<sup>32)</sup> 등

26) 위의 책, 153-161.

27) 하젤은 1930년대 이후로부터 20세기 후반까지를 구약신학의 황금기로 규정한다: G. F. Hasel, 『구약신학: 현대 논쟁의 기본 이슈들』, 김정우 옮김 (서울: 엠마오, 1993), 40.

28)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아이히로트이다. 위의 책, 191. 그는 구약성서의 다양한 신학들을 통합하는 중심점 개념으로 시나산 계약을 강조하면서, 스승인 프로슈(O. Procksch)의 방법론을 따라 자신의 구약신학서를 “하나님과 세계,”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인간” 등의 관계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구약성서 자체에 적합한 전개 방법을 택했다: 『구약성서 신학』(I-II),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1995).

29) 차일즈(B. S. Childs)가 그 대표적인 학자이다: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anonical Context* (London: SCM Press, 1985), 6-17.

30) W. Zimmerli, 『구약신학』, 김정준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6).

31) W. Brueggemann, 『성서로 본 땅』, 강성열 옮김 (서울: 나눔사, 1992).

32) Hasel, “엘머 마르텐스(Elmer A. Martens): 땅과 삶의 양식,” 『20세기 구약신학의

이 그렇다. 이들의 노력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사람) 및 땅(자연)이 서로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들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sup>33)</sup>

크니림의 구약신학 방법론이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이다. 올렌버거가 그의 구약신학을 개관하면서 설명한 바와 같이,<sup>34)</sup> 크니림은 스승인 폰 라트의 전승사적인 연구 방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가 구약성서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의 상당 부분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sup>35)</sup> 뿐만 아니라 그는 전승사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인하여 구약성서 안에 매우 다양한 신학들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처럼 다양한 신학들을 포괄하는 통전적·통합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신학들을 단순하게 병렬시켜 소개하는 방법론을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신학들이 서로를 포함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것들 상호 간의 교류나 관계를 다루는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sup>36)</sup>

더 나아가서 크니림은 구약성서가 단순히 역사에 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야웨에 관해서만 말하지는 않고 도리어 야웨와 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고 주장하며,<sup>37)</sup> 그러한 관계에는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이 공존한다고 본다. 그는 야웨와 현실 사이의 질적인 측면이 창조, 유지, 선택, 해방, 언약, 율법, 공의, 의, 화평, 구속, 용서, 심판, 자비 등의 개념 속에 반영되어 있는 바, 구약신학은 이러한 양상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를 성서 주석의 차원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그는 야웨와 현실 사이

주요 인물들, 424-426; Martens, 『새로운 구약신학: 하나님의 계획』, 김의원 옮김 (서울: 아가페, 1990).

33) 참조. 강성열, “구약신학사 개관을 통해서 본 구약신학의 미래,” 17-20.

34) Ollenburger, “롤프 크니림(Rolf Knierim): 체계적인 구약신학,” 『20세기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 673-675.

35) 자연이 야웨 계시의 가장 중요한 양식들 중의 하나라는 설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Knierim, “구약성서의 계시,” 『구약신학의 과제 1』, 280.

36) Knierim, “구약신학의 과제,” 21-27.

37) 브루거만도 이 점을 인정한다. W. Brueggeman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409.

의 양적인 측면이 아웨께서 연관되는 현실의 범위나 영역, 그것들 상호 간의 관계의 양상을 포함한다고 보면서, 우주적인 자연 세계(창조 세계), 이스라엘을 포함한 인간 상호 간의 존재(공동체), 인간의 개인적 존재의 영역 등의 셋이 그러한 현실을 구성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크니림은 이 세 가지 영역을 우주와 자연, 역사와 사회, 실존 등으로 정리하며, 아웨께서 어떻게 이들 각각의 영역과 관련되는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구약신학의 가장 적절한 방법론에 해당한다고 본다.<sup>38)</sup> 바로 이 지점에서 크니림의 또 다른 구약신학 방법론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사실 크니림은 자신의 구약신학 방법론을 설명할 때, 구약성서 안에 있는 신학적인 개념들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이야말로 구약성서의 다양한 신학들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 구약신학을 구약학의 조직신학이라고 보거나 구약신학이 조직신학적이어야 한다는 제안이 그렇다.<sup>39)</sup>

그러나 구약신학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의 제안이 놀라운 것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구약신학은 오랜 기간 동안 구약성서 안에 있는 다양한 신학들과 개념들을 조직신학이나 기독교 교리에서 가져온 용어들이나 개념들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도리어 구약성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크니림은 구약성서의 다양한 신학들과 개념들이 체계적인(systematic) 분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한 체계적인 분석의 기준을 조직신학으로부터 가져올 것이 아니라 구약성서 자체로부터 가져와야 함을 강조했다.<sup>40)</sup> 그것은 다름 아닌 “정의와 의에 기초한 아웨의 우주적인 통치”를 뜻했다.<sup>41)</sup> 크니림은 가블러의 견해를 따라 이러한 체계화가 성서신학 작업의 본질에 해당하는

38) 위의 글, 32-36.

39) 위의 글, 43-44.

40) 그래서인지 크니림은 자신의 책 서두에서 “질식시킬 듯이 교리화된 접근은 제외”할 것임을 미리 밝힌 바가 있다: Knierim, “서론,” 『구약신학의 과제 1』, 12.

41) Ollenburger, “롤프 크니림(Rolf Knierim): 체계적인 구약신학,” 674.

것으로, 교의학만의 특권이 아니요, 교의학에 체계에 종속되는 것도 아님을 강조한다.<sup>42)</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크니림의 모델을 자신의 구약신학 방법론으로 채택할 것임을 미리 밝힌 왕대일은 자신의 구약신학 방법론을 소개하면서, 구약성서가 제공하는 증언이 매우 다양하며 복수(複數)적이기 때문에 구약성서에서 어느 한 개의 메시지나 개념만을 해설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함을 강조한다. 크니림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그는 구약성서의 증언이 복잡적이고 다양한 까닭에 하나의 구약신학이 아닌 여러 개의 구약신학을 말해야 한다고 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구약성서 안에 있는 다채로운 신학적 개념들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해석하는 작업이 그 첫 번째 방법에 속한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방법은 신학적 개념들을 서로 비교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정경 안에 병렬되어 있는 서로 다른 복수의 증언들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sup>43)</sup>으로는 구약신학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구약신학은 구약성서에 포함되어 있는 복수적인 증언들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한 적이 없었다. 그 까닭에 왕대일은 크니림의 가르침<sup>44)</sup>을 그대로 이어받아 구약성서 안에 있는 다양한 증언들과 신학들을

42) Knierim, “가블러에 관하여,” 874. 크니림의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롤랜드 머피 같은 사람이 그렇다. 그는 크니림의 체계와 방법론이 성서 이후(post-biblical) 시대에 생겨난 것이라고 비판하며, 구약성서에 있는 다양한 신학들의 불연속성이 너무도 심하기에 논리적인 체계 속에 포함될 수 없고, 따라서 구약신학을 체계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그는 구약성서의 다변주의(pluralism)를 체계화하지 않고서도 구약성서 안에 있는 여러 신학들과 더불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다고 본다: Knierim, “롤랜드 머피(R. E. Murphy)의 논평,” 『구약신학의 과제 1』, 64, 65-66.

43) 국내의 구약학자들이 저술한 구약신학서들 중에서는 다음의 책들이 이에 해당한다. 장일선, 『구약신학의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2002[개정증보판]); 구덕관, 『구약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44) R. Knierim, “Comments on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Wonil Kim, Deborah Ellens, Michael Floyd, Marvin A. Sweeney eds., *Reading the Hebrew Bible for a New Millenium 1: Theological and Hermeneutical Studies* (Harrisburg:

개별적으로 파악한 다음, 그것들을 다른 증언들과 비교한 후, 그 의미와 가치의 정당성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른바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unity in diversity)에 더하여 일치 속에서의 다양성(diversity in unity)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요청한다. 왜냐하면 구약성서 안의 다양한 증언들은 제각기 자신이 속한 맥락에서 그들 나름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증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관계를 파악하는 신학적인 기준은 크니림이 제안한 그대로 야웨 하나님의 보편적인(또는 우주적인; universal) 통치에 있다.<sup>45)</sup>

더 나아가서 왕대일은 크니림의 체계화 방법론을 일정 부분 수용하되<sup>46)</sup> 성서주석과 성서신학 및 성서해석학 등이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되지 않은 채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해석적 구조를 찾고자 했던 크니림의 강연<sup>47)</sup>을 토대로 하여, 구약신학을 구약 본문이나 주제에 대한 설명을 뜻하는 구약주석과 구약 본문의 현대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구약해석학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구약주석을 전제하는 구약신학은 주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문의 메시지가 얼마나 보편타당한 진리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구약신학하기가 근본적으로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서술하는 주석 작업과 구약에 있는 복수의 증언들을 서로 비교하는 신학 작업, 그리고 신학에서 얻은 결과를 오늘날의 상황 속에 적용하고 고백하는 해석학 작업 등의 세 단계로 정리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결국 주석의 열매가 신학에서 검증되고 신학의 열매가 해석학에서 적용됨을 뜻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sup>48)</sup>

---

Trinity International, 2000), 26, 38.

45) 왕대일, “구약신학하기-그 방법론,” 90-99.

46) 위의 글, 100.

47) Kinerim, “첫 번째 강연: 성서주석학, 신학, 그리고 해석학,” 『구약신학의 과제 1』, 105-125.

48) 왕대일, “구약신학하기-그 방법론,” 99-116. 그래서인지 왕대일은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인 구약신학서 외에도 주석과 해석학을 담은 책들을 별도로 출간한 바가 있다: 『말씀의

#### 4. 구약신학의 과제와 전망

크니림은 구약신학이 구약성서 안에 있는 다양한 신학들과 개념들을 주석적으로 파악하여 서로 비교함과 동시에, 야웨와 현실 사이의 관계를 우주와 자연, 인류 공동체의 역사, 개개인의 실존 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하되, 그 모든 것들을 구약성서 자체로부터 이끌어낸 원리에 따라 조직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켜야 함을 강조하는 바, 바로 여기에 기존의 구약신학과 구별되는 크니림만의 독특한 구약신학의 과제가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구약신학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1세기 구약신학의 바람직한 전망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크니림은 구약성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다양한 신학들과 개념들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임을 역설한다. 이를테면 구속사, 선택, 계시, 영감, 계약, 메시아 개념, 예언과 성취, 약속, 용서, 구원, 말씀, 율법 등의 모든 개념들이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을 한두 개의 주제로 포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까닭에 크니림은 이처럼 다양한 신학들과 개념들을 어떤 중심 개념으로 통합하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구약주석 작업을 통해서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설명함과 아울러, 그것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서로 비교하는 작업이야말로 구약신학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크니림은 구약성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신학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아직껏 구약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많은 학자들이 단순히 그것들을 병렬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구약정경 안에서 발견되는 다채로운 신학들을 병렬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구약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물론 크니림은 구약성

---

뜻 밝혀 주시오: 주석과 성서 번역』, 민영진 박사 회갑 기념 제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새로운 구약주석: 이론과 실제』 (서울: 성서연구원, 2000); 『구약주석 새로 보기』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5); 『기독교 경학(經學)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서의 다양한 신학들이 서로를 포함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동질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종속적이거나 지배적일 수 있고, 서로 경쟁할 수도 있고 서로 격리되어 함께 존재할 수도 있다고 본다.<sup>49)</sup> 중요한 것은,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교차하는 신학들과 개념들의 상호관계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그는 구약성서의 “정의” 개념을 매우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다루면서,<sup>50)</sup> 구약성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정의에 대한 관심사가 고대 이스라엘의 다양한 사회적인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통일성이 정의에 대한 관심사로 가득 차 있는 아웨 유일신 신앙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강화되며, 정의 개념의 다양성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어떠한 삶의 영역도 그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고, 아웨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사가 구약성서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신학들과 개념들을 평가하는 근원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그는 정의가 약한 자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압제 행동-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압제와 폭력을 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으며,<sup>51)</sup> 중국에는 생태학적인 질서를 포함하는 세계 질서의 창조와 그것의 보전 및 회복 등까지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간주한다. 크니림의 주장에 따르면, 궁극적인 정의는 인간의 역사가 아닌 우주가 최상의 상태에

49) Knierim, “구약신학의 과제,” 23-24.

50) Knierim, “세 번째 강연: 구약신학에서의 정의,” 149-212. 정의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 Weinfeld,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그리고 구약성서에 나타난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J. Miranda, *Marx and the Bible: A Critique of the Philosophy of Oppression* (Maryknoll, N. Y.: Orbis Books, 1974).

51) 크니림은 이 문제를 다음 글에서 한층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약성서로 본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구약신학의 과제 2』, 518-539.

도달할 낙원의 정의 내지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정의를 의미한다. 완전히 조화롭고 충만한 세계는 궁극적인 정의를 제대로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것처럼 조화롭고 충만한 세계는 인간 역사와 관련된 불완전한 세계 안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 역사 안에서는 어떠한 정의도 단지 이차적이고 상대적일 뿐이기 때문이다.<sup>52)</sup>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크니림이 주장하는 구약신학의 두 번째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우주와 자연, 인류 공동체의 역사, 개개인의 실존 등의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우주와 자연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본다.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약신학에 대한 연구가 거듭되는 중에, 많은 구약학자들에게 우주론과 자연을 배제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그 동안 구약학자들이 계속해서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역사의 범주에 의존하여 구약신학 작업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약성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야웨가 인간과 인간 역사의 하나님이신 것은, 그가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다(특히 시 8편을 참조). 야웨 통치의 가장 보편적인 측면은 인간의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포함하는 우주 만물의 창조와 유지에 있다. 그 까닭에 크니림은 창조가 역사나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역사와 존재가 창조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기초하여 크니림은 야웨의 우주적인 통치라는 개념이 다른 개념들보다 앞서서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 기준과 우선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며,

---

52) 크니림은 “정의”의 반대 개념이나 다름이 없는 구약성서의 “죄” 개념에 대한 상당히 긴 글에서도 창조 신학이 죄라는 낱말이 갖는 가장 깊은 의미에 비추어 그 죄를 진단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창조 신학에 의하면, 죄는 창조 세계의 완전함과 그 완전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훼방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구약성서의 죄론과 성서적 죄론 개관,” 『구약신학의 과제 2』, 693-776 (특히 751쪽을 보라); *Die Hauptbegriffe für Sünde im Alten Testamen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Gerd Mohn, 1965). 크니림은 또한 다음의 두 글에서도 창조 신학이 식량과 땅의 주제, 그리고 우주와 역사의 주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스라엘 신학에서의 우주와 역사,” 『구약신학의 과제 1』, 293-382; “식량, 땅, 그리고 정의,” 『구약신학의 과제 1』, 383-412.

야웨의 천지 창조와 통치의 개념 속에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우주적 실재의 개념이야말로 구약성서에서 야웨를 우주적인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확증하는 것의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앞서 살핀 바 있는 정의와 의의 개념이 다른 모든 질적인 개념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정의와 의에 기초한 야웨의 우주적인 통치가 우주와 자연, 인류 공동체의 역사와 사회, 개개인의 실존 등의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직접적으로 계속 표현되고 있다고 본다(창 18:16-33; 은 1:9; 마 6:33; 롬 1:17; 벧후 3:13 등).<sup>53)</sup>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의와 의에 기초한 야웨의 우주적인 통치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이라는 크니림의 주장은, 창조 신학에 근거한 야웨의 우주적인 통치 개념을 다른 모든 주제들과 신학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sup>54)</sup>이기에, 구약성서의 다양한 개념들이나 주제들과 신학들을 하나로 묶는 중심점을 찾고자 하는 전통적인 접근법으로 회귀한 것 같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sup>55)</sup> 뿐만 아니라 크니림이 강조하는 창조 신학이나 야웨의 우주적인 통치 개념은 오늘날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현대적인 문제들-이들테면 생태계 위기나 환경 파괴 등과 같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크니림 자신의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56)</sup> 크니림의 모델을 충실하게

53) Knierim, “구약신학의 과제,” 35-39. 반면에 슈미트는 크니림과는 달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의(righteousness)라는 윤리적인 차원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H. H. Schmid, *Gerechtigkeit als Weltordnung: Hintergrund und Geschichte des alttestamentlichen Gerechtigkeitsbegriffs* (BHT;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68).

54) Ollenburger, “롤프 크니림(Rolf Knierim): 체계적인 구약신학,” 674. 브루거만도 크니림이 창조 신학을 구약신학의 중심점 내지는 출발점으로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다. Brueggeman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30, 160, 162.

55) 타우너 역시 비슷한 견해를 보인다. Knierim, “구약신학의 과제에 대한 시블러 타우너(W. S. Towner)의 논평,” 57.

56) 위의 글, 57-58.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서 본다면, 크니림이 강조하는 창조 신학이나 야웨의 우주적인 통치 개념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헬레니즘과는 달리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데 묶어 이해하는 헤브라이즘의 통섭 개념에 충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르고 있는 왕대일은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할 만도 한데, 이 부분만큼은 아무런 비판 없이 지나치는 것으로 보인다.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크니림은 “구약과 신약 및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구약신학서에 포함시킴으로써,<sup>57)</sup> 구약성서와 그 후속편인 신약성서 사이에 있는 신학적인 연속성의 문제 역시 구약신학의 중요한 과제에 속한 것이라는 학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성서는 신약성서와 합하여 오랫동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경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연속성 문제는 구약신학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을 인정하고 있는 크니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궁극적인 계시가 신구약성서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연결 고리임을 강조하며,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제각기 상대방의 부족함을 메꾸어 줌과 동시에 제각기 부분적으로나마 상대방의 정당한 강조점에 비추어 재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를 보충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그는 두 성서가 자신을 넘어서서 항상 어느 곳에서나 정의와 사랑 및 구원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총체적인 통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하며, 신구약성서 모두를 서로에게 개방되어 있는 책들로 보는 성서신학 분야가 성서신학 자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신학 전 분야를 위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교회와 설교자, 평신도, 신학자 등의 손 안에 있는 성서가 기독교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삶보다는 온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구약신학의 중대한 과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sup>58)</sup>

크니림의 구약신학을 자신의 모델로 삼고 있는 왕대일은 크니림이 주장

57) Knierim, “구약과 신약 및 예수 그리스도,” 『구약신학의 과제 1』, 213-239.

58) 위의 글, 237-239.

하는 이상의 세 가지 구약신학의 과제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첫 번째 과제와 관련하여 왕대일은 크니림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는 구약신학의 지평이 매우 다채롭기에 한 개의 구약신학을 말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다수의 구약신학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구약성서 안에 있는 다양한 개념들이나 신학들을 비교하는 작업이 구약신학의 소중한 과제라는 크니림의 주장을 긍정한다. 이를테면 크니림이 구약신학의 과제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가 있는 정의 개념을 그 자체로서만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같은 보충적인 개념(참조 시 85:10)과 비교하되, 정의와 평화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그렇다.<sup>59)</sup>

크니림의 주장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구약신학의 과제에 대하여, 왕대일은 구약성서가 아웨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도리어 아웨와 세상, 아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보면서, 구약신학은 아웨 하나님이 온 세상이나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 구체적으로 그는 구약신학이 더 이상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이 일어나는 역사를 토론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아웨 하나님이 정의와 공평 속에서 창조 세계 전체, 곧 우주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곳이면 서 동시에 인간의 폭력으로 짓밟힌 불안정한 현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서 그는 구약신학이 오늘날의 지구촌과 한반도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과 쟁점들까지도 다룰 것을 제안함으로써, 구약신학의 건설적이고 규범적인 과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sup>60)</sup>

59) 왕대일, “구약신학하기-그 방법론,” 95. 크니림과 마찬가지로 식량과 먹을거리(만나)의 문제를 구속사나 정의의 시각에서 다루는 다음 글들도 같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신학과 구속사,” 『구약신학』 (2015), 333-364; “먹을거리와 하나님의 정의: 구약신앙의 소망,” 『기독교사상』 667 (2014), 20-27.

60) 위의 글, 114-116.

마지막으로 크니림이 제안하는 구약신학의 세 번째 과제와 관련하여, 왕대일은 성서학자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시킨 채로 성서의 증언들을 신학화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구약신학이 신약성서를 포함한 성서신학적 관점의 지도를 받아야 함을 역설한다.<sup>61)</sup> 역사적으로 볼 때, 학자들은 모험론이나 약속-성취 개념, 또는 구속사나 정경 개념 등을 토대로 하여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지만, 왕대일은 이러한 방식들이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로 간주하는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정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기독교론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와 신론-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의 차이점 내지는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하되, 크니림의 제안을 따라 서로를 대등하게 대하는 개방성과 상호비평적인 보완(mutual critical complementarity)의 태도를 가지고서 두 성서 사이의 대화를 피할 것을 촉구한다.<sup>62)</sup>

## 5. 나가는 말

비록 크니림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가 남긴 구약신학의 중요한 과제들은 후학들에게 남겨져 계속 그 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크니림은 가블리의 알트도르프 대학 교수취임강연(1787년)을 기점으로 하여 구약신학이 교의학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음을 강조한 바가 있다. 그는 또한 구약성서 안에 매우 다양한 신학들과 개념들이 뒤섞여 있지만,<sup>63)</sup> 그것

61) 위의 글, 106.

62) 위의 글, 107-111.

63)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구약신학의 미래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전망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를테면 헨슨(P. D. Hanson; "The Future of Biblical Theology" 1984),

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 개념이나 주제가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그것들을 단순히 병렬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구약신학의 본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리어 그는 것처럼 다채로운 신학들과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상호 비교 방법론을 통해서 밝혀내는 작업이야말로 구약신학의 과제임을 천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크니림은 구약성서의 다양한 신학들과 이념들 또는 주제들을 조직신학과도 같은 체계화 작업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구약신학의 올바른 과제요 방법론임을 역설한다. 그렇다고 해서 크니림이 그러한 체계화 작업의 기본 틀을 조직신학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반대로 그는 구약성서 자체로부터 비롯된 체계적인 분석의 기준을 활용하여 체계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방법론 주장은 가블러 이전에 구약신학이 교의학의 교리 체계에 종속되어 있던 시기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님이 분명하다. 크니림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 우리들과는 다른 그들 나름의 체계화 논리를 구약성서에 담아내고 있기에 그러한 체계화 작업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그는 구약성서의 다채로운 그림들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체계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정의와 의에 기초한 아웨의 우주적인 통치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구속사나 역사 일변도의 구약신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그의 창조 세계를 포섭하는 데 실패했음을 뜻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생태계 위기와 환경 파괴가 지구 공동체의 미래를 크게 위협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니림은 신구약성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기초하여 두 성서의 대등한 관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

화이브레이(R. N. Whybray, "OT Theology: A Non-Existent Beast?" 1987), 바아(J. Barr, "Are We Moving toward an OT Theology or Away from it?" 1989), 콜린스(J. J. Collins, "Is a Critical Biblical Theology Possible?" 1990) 등이 그렇다. Hasel, "구약신학의 미래: 전망과 동향," 『20세기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 533-537.

구약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왕대일의 구약신학은 이제껏 설명한 크니림의 구약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구약신학의 본질과 정의, 구약신학 방법론, 그리고 구약신학의 과제와 전망 등에 있어서 왕대일은 크니림의 발자취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구약신학서의 구성과 목차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왕대일이 크니림의 구약신학을 자신의 모델로 설정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구약신학하기를 수행하면서, 크니림의 구약신학이 가진 한계점이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역사 개념에 버금가는 창조신앙을 강조하거나 정의와 의에 기초한 야웨의 우주적인 통치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 구약성서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미래를 걱정하는 현대인들의 화급한 쟁점들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개념의 우선순위를 내세우는 태도가 중심점 개념을 주장하는 기존의 방법론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구약신학을 조직신학적인 체계화의 작업으로 규정하는 크니림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그렇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가능하다면 크니림의 한계와 문제점을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구약신학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 믿는다.

### <주요어>

성서신학, 구약신학, 체계화, 창조 신학, 정의와 의, 우주적인 통치

### <Key Words>

Biblical Theology, Old Testament Theology, Systematization, Creation Theology, Justice and Righteousness, Universal Dominion

## 참고문헌

- 강성열, “한국의 구약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구약논단』 63 (2017), 104-138.
- 강성열, “구약신학사 개관을 통해서 본 구약신학의 미래,” 『신학논단』 52 (2017), 7-28.
- 구덕관, 『구약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왕대일,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주석과 성서 번역』, 민영진 박사 회갑 기념 제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왕대일, 『새로운 구약주석: 이론과 실제』, 서울: 성서연구사, 2000.
- 왕대일, 『구약주석 새로 보기』,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5.
- 왕대일, 『기독교 경학(經學)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왕대일, “먹을거리와 하나님의 정의: 구약신앙의 소망,” 『기독교사상』 667 (2014), 20-27.
- 왕대일, 『구약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왕대일, 『창조신앙의 복음, 창조신앙의 영성: 창세기 1-11장의 물음, 부름, 푸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 장일선, 『구약신학의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Brueggemann, W., 『성서로 본 땅』, 강성열 옮김, 서울: 나눔사, 1992.
- Brueggemann, W.,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Childs, B. S.,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anonical Context*, London: SCM Press, 1985.
- Eichrodt, W., 『구약성서신학』(I-II),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1995.
- Hasel, G. F., 『구약신학: 현대 논쟁의 기본 이슈들』, 김정우 옮김, 서울: 엠마오, 1993.
- Hayes, J. H. and F. C. Prussner, 『구약성서 신학사』, 장일선 옮김, 서울: 나눔사, 1991.

- Kim, Wonil, Deborah Ellens, Michael Floyd, Marvin A. Sweeney eds., *Reading the Hebrew Bible for a New Millenium 1: Theological and Hermeneutical Studies*, Harrisburg: Trinity International, 2000.
- Knierim, R. P., 『구약 신학의 과제 1-2』, 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2002.
- Knierim, *Die Hauptbegriffe für Sünde im Alten Testamen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Gerd Mohn, 1965.
- Miranda, J., *Marx and the Bible: A Critique of the Philosophy of Oppression*, Maryknoll, N. Y.: Orbis Books, 1974.
- Ollenburger, G. B. C., E. A. Martens, and G. F. Hasel 편, 『20세기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 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 Reventlow, H. G., 『20세기 구약신학의 문제들』, 박문재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 Schmid, H. H., *Gerechtigkeit als Weltordnung: Hintergrund und Geschichte des alttestamentlichen Gerechtigkeitsbegriffs*, BHT;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68.
- Weinfeld, M.,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Zimmerli, W., 『구약신학』, 김정준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6.

<초록>

## 크니림과 왕대일의 구약신학 비교 연구

강성열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크니림은 가블리의 알트도르프 대학 교수취임강연(1787년)을 기점으로 하여 구약신학이 교의학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음을 강조한다. 그는 또한 구약성서 안에 매우 다양한 신학들과 개념들이 뒤섞여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 개념이나 주제가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그것들을 단순히 병렬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구약신학의 본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리어 그는 것처럼 다채로운 신학들과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상호 비교 방법론을 통해서 밝혀내는 작업이야말로 구약신학의 과제임을 천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크니림은 구약성서의 다양한 신학들과 이념들 또는 주제들을 조직신학과도 같은 체계화 작업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구약신학의 올바른 과제요 방법론임을 역설한다. 그렇다고 해서 크니림이 그러한 체계화 작업의 기본 틀을 조직신학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반대로 그는 구약성서 자체로부터 비롯된 체계적인 분석의 기준을 활용하여 체계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들과는 다른 그들 나름의 체계화 논리를 구약성서에 담아내고 있기에 그러한 체계화 작업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그는 구약성서의 다채로운 그림들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체계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정의와 의에 기초한 야웨의 우주적인 통치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니림은 신구약성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기초하여 두 성서의 대등한 관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약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왕대일의 구약신학은 이제껏 설명한 크니립의 구약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구약신학의 본질과 정의, 구약신학 방법론, 그리고 구약신학의 과제와 전망 등에 있어서 왕대일은 크니립의 발자취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왕대일이 크니립의 구약신학을 자신의 모델로 설정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구약신학하기를 수행하면서, 크니립의 구약신학이 가진 한계점이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가능하다면 크니립의 한계와 문제점을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구약신학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 믿는다.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Old Testament Theology of R. Knierim and Tai-Il Wang

Prof. Sung Yul Kang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R. P. Knierim emphasizes that, after the 1787 inaugural lecture of J. P. Gabler as a professor of theology in Altdorf University, the separation of biblical theology and dogmatic theology began. According to his argument, there are many different theologies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substantive plurality of the Old Testament's theologies renders it impossible for us to understand it in terms of unity under a singular theme. Though many Old Testament theologians have published their works in which theological notions of the Old Testament were merely juxtaposed, they have turned out to be unsuccessful.

Knierim argues that the Old Testament speak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Yahweh and reality, and there are three essential realms in the Old Testament reality: the cosmic and natural world (cosmos and nature), corporate human existence (history and society), individual existence (existentiality). Old Testament Theology must interpret how Yahweh is related to each of these realms. In so doing, the most fundamental theological aspect is Yahweh's universal dominion in justice and righteousness based on creation theology.

Furthermore, Knierim argues that Old Testament Theology must systematize the various Old Testament theological traditions analyzed by exegesis. For that reason, he calls Old Testament

Theology as Systematic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Studies. Finally,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should also provide a fresh basis for examining the relationship of the two testaments of the Christian Bible, including the role of Jesus Christ in this relationship.

Tai-Il Wang follows in the footsteps of his master Knierim faithfully. He opposes to the traditional approach dissolving the multiple theological outlooks into a central theological structure around which the whole Old Testament is organized. Rather, he argues that creation and universal perspective must be regarded as the most fundamental theological criteria for talking about Yahweh's relationship to the world. He also adopt Knierim's systematizing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amining task of the relationship of the two testaments, though there may be some limits and problems in Knierim's Old Testament Theology.